



광주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지지부진'

한전·금호 등 요지부동에 시민구단 추진도 힘들어 연말까지 창단 불발뎀 가입비 40억원 날릴 판

광주지역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약속 시간이 9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창단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8년은 상무가 광주를 연고로 K-리그에 참여하는 마지막 해다. 올해까지 광주를 연고로 한 프로구단이 창단되면 추가적인 가입비를 면제받을 수 있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축구연맹)에 가입비 명목으로 낸 40억원의 시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프로구단 창단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40억의 시비를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프로구단 창단 작업이 불발해 그치면 2002년

일 월드컵 4강 신화의 무대인 광주가 '축구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지도 모른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 국군체육부대와 2003~2008년까지 상무축구단을 운영하기로 협약했다. 2004년에는 광주시의 축구단 창단을 조건으로 축구연맹에 40억원(가입비 10억원·축구발전기금 30억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프로축구팀 창단 작업이 실패한다면 가입비 명목으로 냈던 40억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 다른 시도로 해당비용을 승계할 수도 없어 40억원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시민구단 창단과 모기업 창단을 구상해왔다. 시민구단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주를 공모하고 지자체와 지역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팀을 창단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한부로 K-리그에 참여했던 상무 축구단은 다른 지역으로 연고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K-리그 잔류를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실업리그로 무대를 옮길 전망이다.

현재 한국프로축구 14개 구단중 시민구단은 총 4개팀이다. 시민주 공모(1주당 5천원)를 통해 대구 FC는 160억원, 대전 시티즌은 60억원, 인천 유나이티드는 168억원, 경남 FC는 180억원을 끌어 모았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와 지역 기업체가 광고비로 20억원~100억원을 지원했다.

시민구단 창단을 위해서는 시민주 공모로 최소 100억원을 모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창단 비용과 별도로 광주시가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은 40~50억원 선이다. 시민 구단의 재정 부담에 따라 광주시는 모기업 창단을 위해 한국전력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조건없는 입단비 인계와 광주월드컵경기장 무상 사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100억원이 넘는 창단 비용과 연간 100~120억원에 달하는 구단 운영자금이 문제다.

한제만 광주시 체육지원과장은 "지역 기업을 통한 모기업 창단이 최상의 방안으로 보고 접촉중이다"며 "올해 안에 창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유치활동을 통해 창단 작업 속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김연경〉



〈정대영〉

여자배구 지존 가리자

흥국생명-GS칼텍스 22일부터 챔피언 결정전

'겨울리그 통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겠다(흥국생명), 플레이오프 2연승 상승세를 밀려나며 챔피언 자리까지 오르겠다(GS칼텍스)'

한국 여자 프로배구의 간판 스타로 신·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인 김연경(20·흥국생명)과 정대영(27·GS칼텍스)이 소속 팀 자존심을 걸고 한판 대결을 펼친다.

두 선수가 이끄는 흥국생명과 GS칼텍스는 22일 오후 5시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NH농협 프로배구 2007-2008 V-리그 챔피언결정전 1차전을 시작으로 5전3선승제의 왕중왕전을 벌인다. 지난해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을 3승1패로 꺾고 2년 연속 통합 우승했을 때 현대건설 센터로 분무를 삼켰던 정대영이 올해 GS칼텍스의 첫 '우승 청

부사'로 나서면서 두 선수의 2년 연속 맞대결이 성사됐다. 작년 대결에선 김연경이 득점(117점대 72점)과 공격성공률(44.49% 대 36.15%)에서 우위를 보이며 팀을 최정상 자리로 이끌었고,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에서 최우수선수(MVP)까지 2년 연속 통합 MVP에 올랐다.

두 팀 맞대결에서 흥국생명의 우위를 점하는 이들이 많지만 정대영의 활약에 따라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규리그 3위(14승14패)에 그친 GS칼텍스가 15, 16일 플레이오프에서 2위 KT&G(17승11패)를 연파하고 챔피언결정전에 처음 진출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SBS 고교클럽 챌린지리그' 22일 개막... 4개월 열전 돌입

프로축구 K-리그 구단 산하 18세 이하 클럽이 참가하는 'SBS 고교클럽 챌린지리그'가 22일 개막해 4개월 간 열전에 들어간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각 프로 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클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 및 유망주 조기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A조(중부)는 성남(동성고), 서울(동북고), 수원(매andro), 인천(대건고)으로 구성됐고, B조(남부)는 울산(현대고), 포항(포철공고), 전남(광양제철고), 부산(동래고)으로 이뤄졌다.



18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4회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2008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 73kg급 결승전에서 왕기춘(위)이 이원희(아래)를 공격하고 있다. 왕기춘은 연장전 끝에 되치기로 효과를 얻어 이원희를 눌렀다. /연합뉴스

왕기춘, 이원희 꺾어 베이징행 유력

회장기 유도 남자 73kg급 우승

'겁없는 신에' 왕기춘(20·용인대)이 '한판 승의 사나이' 이원희(27·한국마사회)를 물리치고 2008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자리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왕기춘은 18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4회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2008 국가대표 2차선발전 남자 73kg급 결승에서 이원희를 연장전 끝에 되치기기로 되치기로 효과를 얻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왕기춘은 이로써 대표 선발 포인트 15점을 보태 베이징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더 높였다.

준결승에서 상무의 '복병' 윤지섭(24)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물리친 왕기춘은 이원희를 맞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경기를 주도했다. 그러나 점수로 연결하지 못하고 결국 연장 승부에 들어간 왕기춘은 연장 16초 만에 되치기기를 들어 이원희를 되치기로 매트에 누이며 천금같은 효과를 따냈다.

이날 경기 전까지 대표 선발 점수에서 33-26으로 앞서있던 왕기춘은 15점을 보태 12점을 얻는데 그친 이원희를 10점 차로 앞서게 됐다.

문화부, 체육회 사무총장 승인 거부

체육계 "자율성 훼손 고압적 행정" 반발

유인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 정권 문화예술평가위원회의 퇴진을 압박하는 가운데 문화부가 대한체육회 신임 사무총장 승인을 최종 거부할 전망이다.

문화부는 지난 17일 최근 체육회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구안숙 내정자에 대해 '체육회를 이끌어 갈 실무 총책임자로서 실체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사실상 '부적격'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부적격 판단을 내린 이유로 "구안숙 내정자는 30여년간 금융계에서 활동한 금융전문가로 1년 남은 잔여 임기 동안 체육행정을 이끌어가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무총장 내정자는 1981년 이민을 떠나 미국 영주권을 획득해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도 없는 상태로 체육회를 이끌어가는 데 애국심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승근 체육회 경영총괄본부장은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된 임원 자격에 위배돼 승인을 거부한다면 몰라도 금융전문가로서 체육행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화부가 체육회 사무총장 내정자의 경력 등을 문제삼아 승인거부 입장을 취한 것은 사전 조율 미비 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 19일(수)
- ▲프로야구 시범경기 (LG : 롯데)(12 : 50·SBS스포츠), 〈한화 : 우리〉(13 : 00·MBCESP)
 -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부산공고 : 경남고)(13 : 00·KBSN SPORTS)
 - ▲V리그 남자부 (삼성화재 : 대한항공)(18 : 30·KBSN SPORTS)
 -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 삼성생명)(16 : 50·SBS스포츠)
 - ▲프로축구 컵대회 (경남 : 서울)(18 : 50·SBS스포츠)
 - 20일(목)
 - ▲2008 ISU 피겨 세계선수권 ISU 여자소트(00 : 25·SBS)
 -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Utd : Bolton〉(05 : 00 : MBCESP)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전철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부동산청 및 배당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 (062)220-0551	디지털준스튜디오 북구 동성동 교목대학교점 맞은편 2층 가족사진, 돌, 화상, 화상, 웨딩포토, 아이돌 촬영 대표 박찬영 ☎(062)515-4188	전통옛날국밥 동구 지산동 법원앞 농협옆 머리국밥, 내장국밥, 인분순대, 머리고기, 수육 대표 박안순 ☎(062)222-9998	한국관 북구 용봉동 투인@입구 24시 편의점4거리 생고기, 갈비살, 소곱창전골 점심시간(생태탕, 조끼찌개 5,000원) ☎(062)528-5599	창신DECO 북구 두암동 농협3거리 벽지, 장판, 바닥, 롤스크린, 커튼, 리모델링 비데, 장식제, 종합인테리어 전문업체 ☎(062)367-2220	홍삼이야기 서구 풍암동 대주2차상가 101호 홍삼액, 홍삼정, 송삼진과, 홍삼절편, 100%홍삼액, 제조전문, 수생(금산차기떡지음) ☎(062)681-4624	
링크출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각종프리미어, 개생인, 토너, 벨트, 인조, 정품인조 대표 김용균 ☎(061)392-2058	유학허브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와 금남로방향 정규조기유학, 어학연수, 비자상담, 한영 대표 이준화 ☎(062)263-3434	현대셀프세차타운 북구 매곡동 미래이동병원 건너편 대표 정경진 ☎(062)574-3777	고려홍삼 서구 쌍촌동 금호지구 CBS건너편 정관장홍삼, 농협홍삼, 건강식품, 홍삼일예전문 대표 박운경 ☎(062)384-2303	매직터치 북구 양산동 양산우체국에서 동아약방편 보험수리전문, 외제차량전문, 자동차외형복합 및 외장관리 ☎(062)576-6820	서대나라 북구 두암동 시외버스정류장 옆 먹지골목 조그담, 서대당떡집, 서대당, 배생이탕, 생대탕 대표 소진업 ☎(062)251-1100	왕손연탄구이 서구 풍암동 동부@와 서남구청 맞은편 막창구이, 오뎀, 삼겹살, 향정향, 가브리살 대표 구연정 ☎(062)652-9272
미소취깁 동구 계림동 한국화장품 뒷편 튀김전문점(진킨 배달시 튀김인문 서비스) 대표 정동현 ☎(062)233-8246	최경빈요양원 남구 이장동 포총사 가는길 노인성 질환을 알고 개선 65세이상 남녀 부모님처럼 모시는 최경빈 요양원입니다 ☎(062)682-2700	성은아트클레스 북구 양산동 신홍택시 맞은편 인쇄, 광고 제작에서 배포까지 대표 진복금 ☎(062)521-3766	강성아해어살 남구 봉선동 쌍용4거리 김밥나라2층 충장로에서 이전 개업, 컷, 파마 전문 대표 강성아 ☎(062)227-7500	늘기면지역아동센터공무방 두암동 동경대후문 두암동사무소맞은편2층 초등학생 방과후 수업, 학습지도 무료, 수영교과 영어, 한자, 피아노까지 별도 지도합니다 ☎(062)511-6771	명가영명국밥 광산구 송정동 매일시장입구 훌썬빙구함 오후6~12시까지 대표 박은숙 ☎(062)942-2727	고구려보쌈, 감자탕 화정동 신동아@ 카이저호텔앞 보쌈, 감자탕 포장시 10%할인 ☎(062)362-7676
건강식당 동구 궁동 동부경찰서 주차장옆 유기농채소로만든 매일국수, 모밀짜장, 아재비빔밥, 아재비빔모밀 ☎(062)236-3679	참빛광고디자인 북구 두암동 농협3거리 광일엔선 정문앞 각종간판, 타일, 현수막, 네온, 홀딩모어, 버터칼 ☎(062)521-3346	사우스타운카오디오(소매점) 동구 소태동 소태역 앞 카오디오 전문 대표 이재화 ☎(010)3161-7868	행복이용원 서구 화정동 대주@후문 옆주안선 정문앞 1급 모범업소, 기술본부 대표 박홍수 ☎(010)2626-9225	기쁜소리피아노화원 두암동 두동파3차@상가내 유치부초중고 입시 특기자 이론및실기 월장남 1 : 1 직접지도 수강생수시모집 ☎(062)263-6771	리비트가구호남전시장 광산구 산정동 산동고교 보건대사이 식탁, 거실장, 새로운제품의장중 취급전문점 ☎(062)959-6969	빵마루 북구 두암동 농협3거리 정다운 세미골프교 냉동빵이 아닌 빵마루에서 직접굽습니다 방문고객에 사은품 증정 ☎(062)525-9734